

朝鮮時代 宣祖의 疾病에 關한 考察

李海雄, 金勳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A Study on the Diseases of King Sŏnjo in the Chosun Dynasty

King Sŏnjo lived quite longer than other Kings in the Chosun Dynasty. But he suffered various diseases like numbness and pain of the limbs, strokes, gastro-intestinal disorders, break-down of the normal physiological coordination between the heart and the kidneys, heart-based heat, tinnitus, impaired hearing, thirst with frequent drinking of water,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retention of phlegm and fluid. He probably died of stroke due to pathogenic wind-cold and flaring-up of the heart fire at the age of 57.

Keyword : 朝鮮, 君王, 疾病, 先祖

I. 緒論

宣祖는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朝鮮을 이끌어간 임금이었다. 당시 朝鮮은 對外的으로는 日本과 明, 그리고 새롭게 흥기하는 女眞 사이에서 平和를 유지할 수 있는 外交政策을 모색·전개하여야만 하였고, 對內的으로는 黨爭으로 인한 朋黨政治의 폐해가 시작되어 政治的 혼란상을 야기하는 시점이었다. 여기에 壬辰倭亂, 丁酉再亂을 겪으면서 朝鮮王朝는 政治·外交·軍事의으로 開國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兩亂을 초래한 것부터가 內

部政治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政治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日本을 과소평가하고 자기변혁과 개방을 소홀히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宣祖는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압록강가까지 도망을 갔던 치욕의 군주였지만 兵禍로 인한 피폐한 민심과 나라 살림을 다시 추스르는 역할을 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兩亂以後 朝鮮王朝는 政治·社會的으로 큰 변화를 맞게되었고, 자연스럽게 宣祖를 기점으로 朝鮮時代를 前期와 後期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역사인식이라 할 것이다.

朝鮮時代 醫學의 발전도 일반 역사의 전개와 다르지 않게 壬辰倭亂을 전후로 하여 前期와 後期の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으며 1), 宣祖는 그 분수령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象徴的인 人物이었다.²⁾³⁾ 또 世宗과 世祖, 成宗을 거치면서 융성했던 우리 醫學이 燕山君의 실정을 계기로 점점 自主性을 잃어가고 中國의 醫學文物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宣祖는 許浚으로 하여금 『東醫寶鑑』을 編纂⁴⁾하게 함으로써 이후 醫學發展의

초석이 되게 하기도 하였다. 『東醫寶鑑』의 編纂作業은 宣祖의 命을 받아 許浚이 內藏方書를 참조하여 완성한 것이지만, 이는 당대의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의학전개의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강력히 발휘하여 조선시대 의학사를 가름하는 가장 획기적 사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東醫寶鑑』은 당대까지의 醫學의 知識을 完整하게 集大成해 놓고 있어 朝鮮醫學의 범주를 벗어나 전체 東洋醫學史의 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1)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93, p.194, p.261
- 2) 孫弘烈은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에서 조선 초기의 下限을 成宗代까지로 잡고 있다. 이는 成宗代에 『經國大典』의 頒布로 朝鮮時代의 제도가 완비되었고, 醫療制度도 이 때 정비되었으며 이후 壬辰倭亂까지는 별로 변동이 없다가 壬辰倭亂 이후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비록 成宗을 하한으로 하였으나 사실상의 의미로는 壬辰倭亂까지 본다고도 할 수 있다.(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 修書院, 1988, p.11.)
- 3) 『韓國韓醫學史 再定立 [上]』(韓國韓醫學研究所, 보건복지부 과제 1995년도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계를 許浚의 『東醫寶鑑』의 출간으로 잡음과 동시에 壬辰倭亂과 연관시키고 있다.
“조선 후기라는 시대 범주를 광해군 때의 『동의보감』 출간으로부터 철종말기로 하였다. 『동의보감』의 출간을 시점으로 조선 후기의 시작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의보감』의 출간에 영향을 미친 당시 동북아의 최대사건이었던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으로부터 이 시기에 잡아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같은책, p46)
- 4) 東醫寶鑑은 壬辰倭亂을 지난 5만인 宣祖 29년에 太醫 許浚이 宣祖의 命을 받들어 儒醫 鄭澈, 太醫 楊禮壽, 金應鐸, 李命源, 鄭禮男들과 함께 局을 設하고 撰集하게 되었는데, 아직 완성을 보기 전에 다시 丁酉의 亂을 만나 諸醫들은 사망으로 흩어지고 그 일은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 후 宣祖가 다시 許浚에 명하여 단독으로 그 撰集을 완성케 하였는데, 그 때에 內藏方書 500卷을 내어 考證에 資케 하였다.(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93, p.319.)

本考에서는 朝鮮社會 前·後期の 분기점이 되며, 그리고 『東醫寶鑑』의 편찬으로 朝鮮醫學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宣祖의 질병기록을 『朝鮮王朝實錄』의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宣祖의 疾病을 考察하는 것은 宣祖 個人에 국한하여 바라보는 시선과 朝鮮時代 全體 君王을 아울러 비교하여 그 중의 한 임금으로서 살펴보는 시선이 같이 존재할 것이다. 醫學史의 인 입장에서 한 個人, 특히 君王의 疾病을 考察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意味를 지닌다.

우선 『朝鮮王朝實錄』의 記錄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매우 詳細하며 系統的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君王 個人에 대한 기술이 중심을 이뤄 서술되고 있어서 出生부터 死亡까지 그 人間的인 모든 面을 포함한 세세한 疾病記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과거 歷史속의 個人的 疾病史의 고찰에 관해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아울러 군왕에 대한 疾病記錄의 고찰은 個人的 疾病史의 연구 외에 당시 醫學의 水準과 面貌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同時代

에서 最高의 權威를 가진 醫術의 혜택을 받았을 君王의 疾病과 治療에 대한 研究는 그 시대 醫學의 座標와 位相을 살펴볼 수 있는 方法論이 될 것이며, 또한 醫學의 變遷過程을 社會·政治·經濟·哲學·文化的인 面과 複合的으로 살펴볼 때 包括的인 醫史學的 意味⁵⁾도 가진다 할 것이다.

부연하면 『朝鮮王朝實錄』은 한 個人의 歷史가 아닌 지배층을 중심으로한 國家 公文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歷史記錄物이다. 비교적 공정하게 宮中內의 사실 뿐 아니라 당시의 社會文化象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多樣하고 詳細한 내용을 體系的으로 담고 있으며,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君王 個人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으므로 君王의 疾病에 대한 記錄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君王에 대한 治療는 當代 實力이 最高라 할 수 있는 御醫들에 의해 施行되었으므로 당시의 醫學의 수준과 기술상을 검토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한사람의 君王의 疾病에 대한 검토는 個人 君王이 아니라 나라의 象徴인 임금으로서 파악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醫史學的 內容까지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宣祖의 疾病에 關한 內容을 『朝鮮

王朝實錄』에서 찾아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本 論文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시디롬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작한 것⁶⁾을 이용하여 기본 자료로 삼았다.

歷代 朝鮮時代 君王들의 疾病에 關한 研究는 이미 1996년에 圓光大學校 博士學位論文으로 나온 金 勳의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關한 研究'⁷⁾가 있는데, 이것이 君王들의 疾病에 關한 본격적인 研究로서는 처음이다. 여기서 저자는 朝鮮 前期의 임금인 太祖부터 成宗까지 임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朝鮮時代 君王들의 평균수명⁸⁾에 關해 언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研究方法論을 처음으로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尹漢龍과 尹暢烈의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⁹⁾가 있다. 여기서는 앞의 論文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 다음 임금인 燕山君, 中宗, 仁宗에 대해 分析을 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제목에 '死因'을 언급하여 研究의 중심이 질병 全般과 더불어 死因에도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밖에

5) 유초하는 『한국사상사의 인식』(p18 : 한길사, 서울, 1994)에서 "한국'사상'사는 '한국사' 일반이나 한국의 정치·경제·철학·종교 등 각 부문별 역사와의 두터운 연관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며 올바르게 해명될 수 있다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韓國醫學史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은 단지 임금의 언행과 행적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철학·종교를 비롯한 시대 전체를 담으려고 노력한 저작이므로 우리는 『朝鮮王朝實錄』에서 '朝鮮時代'를 상당한 정도 바라 볼 수 있고, 이는 醫史學的인 면에서도 대단히 의미있는 著作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CD-ROM 韓國歷史 五千年 III 〈CD-ROM 國譯 朝鮮王朝實錄〉, 서울시스템주식회사, 2001(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회가 국역하고 서울시스템에서 시디롬 데이터베이스화함)
7) 金 勳,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8) 조선시대 군왕들, 즉 太祖부터 順宗 까지 스물 일곱 명의 임금의 평균 재위기간은 19년 2개월, 평균 수명은 47세이다.(金 勳,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關한 研究', p13(圓光大學校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9) 尹漢龍, 尹暢烈,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 韓國醫學學會誌 2001 VOL.14, No.1, pp125~151

단행본으로 강영민의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¹⁰⁾가 있는데, 의사이자 수필가로서 저자는 알기쉽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역사와 야사를 인용하여 임금의 疾病에 관한 짤막한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專門性 있게 임금의 疾病을 體系的으로 研究한 것은 아니다.

宣祖(1552 명종 7년~1608 宣祖 41년)는 朝鮮 제14대 임금으로 諱는 昞이고, 中宗 恭僖大王의 손자이며, 德興大院君 李崝의 셋째 아들이다. 母親은 河東 府夫人 鄭氏로 증 領議政 鄭世虎의 딸이다. 初名은 李鈞인데, 明宗 7년(嘉靖 31년) 壬子年 11월 11일 漢城 仁達坊 私第에서 출생하였다. 明宗의 사랑을 받아 어린 나이에 河城君에 봉해졌다가 明宗이 후사 없이 죽자 1567년 6월 16세의 어린 나이로 朝鮮 제14대 왕으로 올랐다. 처음에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仁順王后가 垂簾聽政을 하였고 이듬해 실질적인 임금의 職分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學問에 정진하고 性理學에 입각한 王道政治를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士林을 두루 등용하여 한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듯 하였으나, 沈義謙과 金孝元의 反目¹¹⁾으로부터

시작된 西人, 東人의 紛爭은 朋黨의 시작이었다. 宣祖는 의심과 변덕이 많은 인물이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만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朋黨을 조화롭게 조정하지 못하고, 갈수록 紛爭에 휘말려들었다. 또 鄭澈의 탄핵을 둘러싼 東人의 분열은 南人과 北人으로 갈라져서 黨爭은 갈수록 심해졌다. 여기에다 1589년에 일어난 鄭汝立의 역모사건은 나라를 완전히 뒤 흔들어 놓았고 이 때 宣祖는 무고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니 軍役이 문란해지며, 秘氣圖讖說이 유행하기도 하였고, 지방군대는 훈련되지 않았으며, 軍籍은 비었고 國防은 날로 위태로워져갔다. 李珣의 10萬養兵說은 주위의 반대로 무시되었다. 宣祖도 여러 정황으로 보아 日本의 침략에 대비해 각 지역의 방위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軍役이 문란하여 성과를 거둘 수 없었고, 또한 鄭汝立 사건을 겪으면서 호지부지 되어 다가올 日本의 침략에 거의 대비할 수가 없었다.

滿洲일대에 자리잡은 女眞族은 누르하치(老乙可赤)를 중심으로 강력히 통합되어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여 明나라를 위협하게 되었다. 日本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끌어 들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성되었으며, 그는 1585년 關白에 임명되어 실질적으로 日本을 지배하게 되었고, 강력한 대륙 진출의 의지와 높아져 가는 상인들의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明나라를 아우를 생각을 하였다.

드디어 1592년 壬辰倭亂이 일어났으며, 이

감사에 제수하였는데, 용사하는 무리들이 사당(私黨)을 끌어들이고 정사(正士)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조정에 문제가 많아졌다. 이 때 이이는 물러가 해주(海州)에 거처하고 있었고, 김우옹은 병을 핑계대고 향리로 돌아와 있었다.

10) 강영민,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 태학사, 서울, 2002

11) 『宣祖實錄』 宣祖 10년 5월 27일 <심의겸과 김효원의 시비로 인한 상황>

처음에 심의겸(沈義謙)이 외척(外戚)으로 용사(用事)하여 한때의 명류(名流)들이 모두 불꽃았는데 김효원(金孝元)이 전랑(銓郎)이 되자 비로소 배척하기 시작했으므로 심의겸에게 출입하던 시배(時輩)들이 미워하여 봉당(朋黨)이 점점 나뉘더니 비로소 동서(東西)의 설(說)이 생겼다. 이이(李珣)가 대신들에게 말하여 둘 다 내쳐서 화단이 생길 빌미를 막아야 한다고 청함에 따라 김효원은 삼척 부사(三陟府使)에 제수하고 심의겸도

때 宣祖는 자기 한 몸만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고, 심지어는 明나라로 들어가 歸化할 생각까지도 하였다. 戰爭이 끝나서도 자기를 따라 다닌 사람에게 준 扈聖功臣¹²⁾을, 武功을 세운 사람에게 주었던 宣武功臣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지정하여 여전히 歷史 및 주변부 政勢 認識에 문제를 드러내고 國難克服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日本과의 戰爭중에도 의연하게 分朝의 직무를 수행, 위험을 무릅쓰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軍士를 격려하고 民心을 진정시키는데 큰공을 세운 光海君을 견제하였으며, 戰爭에서 혁혁한 武功을 보여준 李舜臣에게 죄를 주고, 金德齡을 누명을 씌어 제거하기까지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朝廷은 또다시 北人政權이 大北, 小北으로 갈라지는 등 政爭을 그치지 않았고, 宣祖도 말년에 이르러 각 黨派의 사람들을 번갈아 쓰다가 쫓아내는 등, 戰後 政治社會의 秩序를 바로잡고 混亂을 수습할 시기에 紛亂을 조장하였다. 게다가 말년에 얻은 永昌大君을 편애하여 뒷날 분쟁의 씨앗을 삼았으며, 1608년 宣祖 41년에 57세로 病席에서 갑자기 暴死하여 宣祖의 죽음을 두고 光海君의 일과가 독살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다. 끝까지 王位 문제를 확정짓지 않고 무고하게 光海君을 미워하여 죽으면서까지 政治的인 불안을 深化시켰던 것이다.

12) 壬辰倭亂 때에 宣祖를 모시고 의주까지 호종한 사람에게 내린 훈포인 扈聖功臣에 의원려준도 포함되어 있다.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빨간공급도 거절해 대부분의 벼슬아치들이 달아났으나 끝까지 따라다닌 공로로 扈聖功臣 3등급에 책봉되어 陽川君이란 봉호를 받았다.(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2』 - 국가재건과 청의 침입, p30, 81(한길사, 서울, 2000))

『宣祖實錄』은 光海君代에 北人 奇自獻, 李爾瞻등이 편찬했으며, 宣祖 25년(1592) 壬辰倭亂 이후 16년간의 記事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여 전체 221권 중 195권에 달한다. 반면 宣祖 卽位年부터 壬辰倭亂 이전까지 약 25년간의 기사는 26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壬辰倭亂 이전 시기의 『春秋館日記』, 『承政院日記』, 『各司臚錄』 등과 같은 관련 記錄들이 모두 소실되어 實錄 編纂의 資料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¹³⁾ 이후 仁祖反正으로 北人政權이 무너지고 西人이 政權을 잡게 되자 『宣祖實錄』의 개정을 요구하여 이후 孝宗 8년 9월에 『宣祖修正實錄』이 완성된다.¹⁴⁾

II. 本 論

宣祖 6년, 곧 宣祖의 나이 22세가 되는 해 1월 3일의 記錄에 “玉音이 正常的이 아닌지 이미 몇 해가 되었어도 오래 끌고 낫지 않으니 入侍한 臣下로서는 누구나 물러가서 근심합니다.” 라는 내용이 보이고 그해 2월 25일에는 玉音이 조금 正常으로 회복되어 入侍한 臣下가 기뻐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宣祖가

13) 이성무,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p298(동방미디어(주), 서울, 1999)

14) 이이화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선조수정실록에는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정세에 대해 낸 의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국서 등 새로이 여러 사실을 보충되어 있고,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을 합하면 전체적인 분량도 각년도마다 균형이 맞고 내용도 그런 대로 갖추게 된다. 따라서 선조수정실록은 당파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모자란 부분을 보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1』 -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 p51(한길사, 서울, 2000)

元氣旺盛한 20대 초반에 이미 목소리가 안 좋은지 몇 해가 되었다는 것으로 神氣와 腎氣에 不足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宣祖 7년 1월 7일의 記錄에 입맛도 없고 자주 체하여 편치 않으므로 醫官이 진찰하고 元氣가 허약한데다 痰飲증세가 있다고 말한 내용으로 보아 後天脾胃의 調養에도 문제가 있어 음식의 腐熟 降濁 및 水液代謝의 기능실조로 인한 痰飲證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같은해 8월 16일에는 '藥房이 아뢰기를, "六腑가 모두 미열이 있고 心腎胃 三臟이 조금 허합니다. 이 虛熱 때문에 날 것과 찬 것을 즐겨 드시므로 中氣가 점차로 손상되어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遠志 白茯苓 神麴 麥門冬 枳殼을 加味한 養胃進食湯은 한편으로는 허한 면을 보하고 한편으로는 全身을 疏通시키는 것이니..."라는 記錄에서 이 내용이 나타난다. 이로 보아 이 때의 宣祖는 胃陰不足, 心陰虛, 腎陰虛, 脾氣虛, 腎氣虛衰 등의 證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 9월 27일에는 藥房提調¹⁵⁾가 문안하고 加味凝神散을 올렸는데, 이 때의 加味凝神散은 東醫寶鑑에 있는 凝神散의 加味方으로 생각된다. 東醫寶鑑의 凝神散은 『醫學入門』 「通用古方詩括」의 脾胃 부분¹⁶⁾에서 인용한 것으로, 胃氣를 收斂하고 肌表를 清涼하게 하는 處方이다.

宣祖8년(24세) 1월 2일에 仁順王后가 昇

遐하였는데, 1월 6일에는 宣祖가 大瘵할 때 瘵하던중 갑자기 기침을 많이하다 窺알만한 疔덩이 다섯개를 토하였다. 이는 宣祖가 喪을 당하여 心身이 많이 困倦한데다 슬픈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肺가 傷하고 心脾虛火가 逆上한所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 해 1, 2월의 記錄에는 상이 感氣에 걸리고, 脾胃에 이상이 있으며, 心臟에 열이 있다 하는 등의 心·脾·肺臟의 失調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월25일에는 "...성후의 맥도에 肺脈의 虛數과 脾胃脈의 虛弱이 전보다 심하고 腎脈마저 微弱하여 天顏이 수척하고 누르며 血氣가 점점 줄어들어 수라마저 조금 드시니, 이는 脾胃가 虛弱하여 위는 텅고 아래는冷하며 滋養은 不足한데 勞動은 지나치시어 虛熱이 위로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라 하며 三仙膏, 生脈散, 生마죽 등을 권하고 있다. 또 3월 2일에는 心肺虛熱로 醫官이 加味凝神散을 처방하였으며, 3월 5일에는 脾肺脈이 아직 좋지 못하여 加味凝神散, 生脈散을 권하고 있다. 26세인 宣祖 10년에도 議政府가 상의 脾胃症을 염려하는 記錄이 보인다.

이상으로 살펴볼 때 宣祖는 이미 20대에 先天腎氣와 後天脾胃의 調養이 失調하여 玉音의 문제와 中氣不足, 虛熱이 나타나고 있으며, 肺氣의 宣降과 通調水道작용, 脾氣가 水濕을 運化하고 昇清하는 기능, 腎陽의 氣化作用의 失調로 인하여 水液代謝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痰飲과 이로 인한 症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宣祖의 疾病의 基本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히 腎氣不足과 이로 인한 心熱의 上煩이 持病으로 남게 된다.

宣祖는 30대에 이르러 별다른 疾病記錄이

15) 『經國大典』을 근거로 볼 때, 提調는 實務官署의 東班 京官職으로서, 都提調는 一品의 官員이, 提調는 二品이상의 官員이, 副提調는 正三品 堂上官이 이를 兼任하여 事務를 指揮·監督하였다.(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p264(修書院, 서울, 1988))
16) 李 梴, 『醫學入門』(新校編註醫學入門 下, p677(大星文化社, 서울, 1994))

나오질 않는다. 다만 宣祖 16년(32세) 8월 4일에는 팔이 아파서 鍼을 맞았다는 記錄이 있고, 宣祖 20년(36세)에는 10월 5일에 感氣症狀이 있어 御醫가 診脈을 하였다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二陳湯을 올리라는 傳敎가, 18일에는 杏仁을 가미한 五味子湯을 들이라는 傳敎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30代에는 가벼운 筋骨格系 疾患과, 感氣정도만 記錄되어 나타날 뿐이고, 그것도 많은 빈도수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 보아 宣祖는 30代에 調攝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肉體的·精神的으로도 커다란 障礙가 없이 건강이 잘 유지되었던 시기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타난 記錄만으로 宣祖의 건강상태를 추정하기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1592년 宣祖 25년(41세)부터 시작되어 1598년 宣祖31년(47세)에 끝난 壬辰倭亂 및 丁酉再亂¹⁷⁾ 등으로 인하여 宣祖의 疾病記錄이 많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宣祖의 질병기록은 戰爭이후 40대부터가 그 이전인 20代, 30代에 비해 훨씬 많이 나타난다. 宣祖의 疾病은 아마도 20代의 상태를 基本으로 하여 30代에도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17) 일본과 치른 전쟁(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은 1592년 4월부터 1598년 11월까지 6년 7개월동안 진행되었다. 중간 3년의 휴전기간을 빼면 실제로는 4년쯤 전쟁을 치른 것이다. 결국 당사국 모두가 무승부를 記錄한 셈이며, 참전했던 군사들이 그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것으로 전쟁을 마무리지었다. 허나 명나라의 군사가 참전한 뒤부터 조선은 군사 지휘권과 화의교섭권을 내주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일본과 명나라가 주도하는 전쟁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였으며,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터로서 모든 피해를 입었다.(이 이화, 『한국사이야기 11』 -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 p368(한길사, 서울, 2000) 참조)

40代에 이르러서는 43세부터 49세까지 매해 疾病에 관한 記錄이 보인다.

宣祖 27년(43세) 4월 26일에 “상이 便殿에 나아가 鍼을 맞았는데 팔목과 넓적다리가 아프기 때문이었다.”라 하고 이어서 5월 3일과 5월 7일에 鍼을 맞았다는 記錄이 있다. 이듬해 宣祖 28년(44세)에는 7월 28일과 8월 2일에 상이 別殿에서 鍼을 맞았다는 記錄이 보이는데 무슨 연유로 치료를 받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8월 8일에 “藥房 都提調 金應南, 提調 洪進, 副提調 趙仁得이 아뢰기를, ‘상께서 鍼을 맞으신 뒤로 성후가 어떡하십니까? 頭痛·귀울림·肩臂·虛寒등 여러 症勢에도 차도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快差하지 않으시다면 二七日이 지난 뒤에는 부득이 藥物로 조치하셔야 聖候가 회복되실 수 있을 것이므로 감히 여쭙니다.’”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보건대, 頭痛, 귀울림, 肩臂痛, 虛寒症 등의 症勢로 치료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宣祖 29년(45세) 5월 11일에 “임금의 왼쪽 귀가 심하게 울리고 들리지 않으며, 왼손의 손등에 부기가 있는 듯하고 손가락을 당기면 아프고 왼쪽 무릎도 시고 아파서 잘 걸지 못하므로 鍼을 맞으려 한다.”는 언급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14일과 17일에 鍼을 맞은 기록이 보인다. 8월 27일에는 ‘備忘記로 病이 심하여 정무를 보기 어려우니 世子가 攝政하도록 傳敎하다’는 제목의 記錄을 보면 宣祖가 당시 疾病狀況에 대해 직접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면, “이제는 양쪽 귀가 완전히 먹었고 두 눈이 모두 어두워져 지척의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고 몇 줄의 글도 자획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心病마저 생겨 날로 더욱 고질이 되어 하는 말이 잘못되기만

하고 하는 일도 어그러지기만 하여 昏忘과 顛倒를 거듭하고 있으니 놀랍고 당황스럽다. 두 팔은 삼대처럼 뻗뻗하고 두다리는 잘 펴지지 않아 四肢와 百體가 아프지 않은데가 없는데 특히 가슴 속의 답답한 기운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宣祖의 말에서 볼 때, 당시 宣祖는 眼昏, 難聽, 心煩恍惚, 上肢拘急, 膝眼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宣祖 30년(46세) 1월 6일에는 宣祖가 痰症과 胸痛이 심하며 겨울 추위로 胸痛이 더욱 심해짐을 말하고 있으며, 感氣와 眩氣症 등을 호소하며 雜務를 世子에게 돌리기도 한다. 4월 13일에는 宣祖가 病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藥房 都提調 등이 偏虛로 인한 耳鳴이니 鍼을 여러번 맞고 가을에 서늘해지면 뜸을 뜨자고 권한다. 여기서 일단 宣祖의 症勢 중에 耳鳴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귀의 疾患이 癩疾化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4월 14일에는 鍼을 맞으면서 宣祖가 자신의 증세를 말하고 있는데, “오른편 겨드랑 밑에 氣가 도는 듯하고 오른편 무릎이 늘 시리고 아픈데 대체로 오른편이 더욱 심하다. 그리고 이따금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증상이 있고 온몸에 땀이 나지 않아도 이쪽은 땀이 나는데 또 추위를 견디지 못할 적도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宣祖는 腎氣不足으로 인한 耳鳴症勢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風寒으로 인한 痺症과 膝眼風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宣祖 31년(47세)에는 2월에 宣祖의 건강이 안좋아서 침상에 앉아 누워 있으며 임시 國政을 世子가 攝行하도록 바라고 있다고 하였으며, 3월 3일에는 藥房 官員이 왕에게 鍼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臣들이 醫官의 말을 듣건대,

玉體의 症勢가 寒氣는 여전하며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고 부기가 있는 듯합니다. 鍼을 맞고 藥을 쓰는 일에 대해서 臣들이 醫官과 더불어 상의한 결과, 寒濕한 氣運이 氣를 따라 流動하여 지금 왼쪽 다리에 있으니 반드시 經脈을 따스하게 하고 濕한 氣運을 運行하게 하는 藥을 調劑하여 써야합니다.”라고 하면서 烏藥順氣散에 蒼朮, 當歸尾, 白朮, 防己, 檳榔, 羌活, 桃仁, 白茯苓, 麻黃을 넣어 쓰고 따스할 때 鍼을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3월 12일에는 烏藥順氣散이 별 효험이 없으면서 獨活을 제거하고 秦芫과 桂心을 木瓜와 續斷으로 대신하고 黃柏을 넣어 進御하도록 한다. 이 부분의 秦芫은 秦芫의 異名으로 들어가는 약물들이 주로 筋骨格系의 질환에 응용되는 藥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오래 복용하면 肺胃를 상할까 염려하여 延年益壽不老丹 加減을 권하면서 춥고 비오는 날에는 五加皮酒를 드시도록 하였으나 宣祖가 약을 짓지 말라고 하고 鍼을 맞기를 원하였다. 9월 22일에는 宣祖의 가슴앓이 증세가 나오는데 藥房이 加入二陳湯을 권하였으며, 온수목욕을 하지 말도록 건의하였으나 宣祖는 심한 증세를 이유로 온천수에서 목욕하기를 명하였다. 이로써 宣祖의 症勢가 계속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宣祖 자신도 醫學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어서 藥房의 진언을 평가하거나 스스로 치료책을 내놓는 등의 일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나중에 宣祖 37년 7월 2일의 記錄에, “...내가 醫術을 모르기 때문에 그 藥이 症勢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醫書를 조금 보았으므로 한두 가지 病이 생기는 까닭을 알기 때문에...”라고 써있는 데에서 宣祖가 어느 정도 醫學에 조예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

마도 儒學을 공부하는 가운데 醫學에 관심이 있어 몇몇 주요 醫學書를 講讀한 수준일 것인데, 世宗이나 世祖의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宣祖 32년(48세)에는 都提調 李恒福이 宣祖의 病이 오래 되었음을 알고 蔘苓白朮散에 乾葛, 麥門冬, 木瓜, 五味子를 가하여 드시도록 하니 宣祖가 그렇게 하라고 답한 내용이 있다. 蔘苓白朮散은 大病後 助調脾胃 하는데 쓰는 藥으로 補裨益氣, 調和脾胃, 化痰, 理脾滲泄, 補肺止咳 등의 效能이 있어 이로 미루어 볼 때 宣祖의 病이 오래되어 脾胃機能의 虛衰로 인한 症狀이 당시에 심하였음을 나타낸다.

宣祖 33년(49세)에는 1월 9일에 藥房提調와 副提調가 주상의 患候에 대한 處方策을 논하여 말하기를 상의 症勢는 본디 心熱이 쌓여서 온 것이라 三味導赤散과 左金丸을 進御하도록 아뢰었고, 1월 20일에는 導赤散의 功力이 미약하여 清心丸에 木通, 連翹, 赤茯苓을 加味한 處方을 올렸다. 이 때는 茯苓도 赤白 구분이 나뉘어 쓰였음을 알 수 있고, 정사에 마음과 몸이 노곤하여 心熱이 쌓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1월 22일에는 宣祖가 感氣에 걸려 蔘蘇飲을 지어 올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2월 28일에는 引飲症이 있어 원래 處方에 麥門冬을 가미하고 桑白皮를 蜜灸한 梅花茶를 더하여 차로 마시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며 이는 5월 28일 記錄에까지 아직 引飲症이 그대로라는 데서 宣祖가 그 동안의 疾患에 더하여 引飲症까지 추가로 앓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宣祖가 40대에 앓았던 疾病은 주로 筋骨格系 疾患과 心熱로 인한 煩躁, 痞悶, 脾胃損傷, 虛火上擾, 腎虛症 등의 症狀에 40대 후반에 생겨난 引飲症¹⁸⁾을 추가로 들 수 있

다. 이는 40대에 이미 退行性 疾患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며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쳐있고 免疫力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宣祖 34년(50세)에는 心熱로 인한 症狀이 여전히 나타나고 感氣로 인한 咳嗽症이 보인다. 2월 5일에는 怔忡症으로 인해 出入을 못하고 있다는 記錄이 있고, 4월 15일부터는 感氣에 걸려 人蔘清肺散 加減方을 進御하였고, 4월 20일에는 感氣 後遺症으로 가슴에 痰熱이 壅塞된 연유로 咳嗽가 있어 清金降火湯 加減方을 進御하였는데 4월 26일에는 宣明防風湯과 二陳湯 合方의 加減方을 進御하였고, 5월 1일에는 理中豁痰湯, 瀉白散 등을 進御한 記錄이 있다. 또한 11월 21일에도 感氣에 걸렸음을 알 수 있는 記錄이 있어 宣祖가 感氣및 이로 인한 咳嗽, 痰涎으로 고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宣祖 35년(51세)에는 11월 11일에 宣祖가 霍亂症을 일으켜 胃茶湯을 조제하여 올렸는데 다른 특별한 記錄은 보이지 않는다.

宣祖 36년(52세)에는 感氣로 계속 고생을 하였다. 9월 26일에 感氣 증세는 줄었으나 기침이 밤에 그치지 않고 눈이 어지러운 증세가 있다 하였는데, 10월 4일에는 아직 증세가 낫지 않아 半爪丸 加減方을 進御하였으며 10월 8일에도 계속 半爪丸을 進御하고 있다. 또 12월 19일에 '임금이 편찮았다. 感氣가 慢性이

18) 引飲症은 宣祖 33년에 4건의 記錄이 나타나고,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引飲症이 치료되었을 가능성과, 단지 크게 심하지 않게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막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心痰熱과 筋骨格系 질환으로 인한 운동부족의 가능성, 心腎不交로 인한 上實下虛의 증상 등으로 미루어보아 引飲症이 완치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된데다 咽喉症을 앓았다.'라 하였는데 12월 30일 까지 계속 效驗이 별로 없었고, 咽喉症은 이듬해 7월까지 持續되었다. 헌데 여기서 말하는 半瓜丸은 『東醫寶鑑』에서 말하는 半瓜丸¹⁹⁾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宣祖 34년 5월 1일과 11일에 半瓜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症狀이나 治療法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半瓜丸과 效果가 同一한 處方을 지칭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半瓜丸은 『東醫寶鑑』에 수록되어 나오는 『醫學正傳』의 半瓜丸과 같은 處方이며²⁰⁾ 당시에 이미 쓰이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宣祖 37년(53세)에는 전의 咽喉症을 계속 앓고 있었으며 3월 3일부터 鍼을 맞은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평소 心熱로 인해 熱이 오르내리는 등의 症勢가 있었던 것을 호소하고 있고, 荊防敗毒散, 瀉白散 등의 藥을 進御한 내용이 나온다. 7월 2일에는 藥房이 아뢰기를, "...몹시 더운 때를 만나 心肺의 火가 목구멍으로 치솟기 때문에

咽喉症과 失音症이 오래도록 폐차하지 않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咽喉部의 문제로 인하여 목소리에 영향이 생겼고 이것이 慢性이 되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9월 23일에는 평소 앓아오던 偏頭痛이 돌연 발작하여 鍼을 연속으로 맞았으며, 이 偏頭痛은 10월 23일까지 거의 한달 가량 지속되었다. 그리고 同日에 藥房 官員들에게 포상을 하기도 하였는데, 宣祖의 偏頭痛이 어느 정도 快差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宣祖 38년(54세)에는 7월 30일에 宣祖가 오랫동안 藥을 드시고 調攝하셨다 하며 8월 1일에는 宣祖가 備忘記로 이르기를 "내가 평소에도 疾病이 많았는데, 근년에는 갑자기 失語症에 걸려 百藥이 效驗이 없어 실로 언제 다시 臣僚들을 접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하니 오랫동안 藥을 복용한 것은 失語症 때문인 듯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失語症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失語症과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失音症과 같은 의미로 쓰인 듯하다.

宣祖 39년(55세)에는 주로 筋骨格系 疾患을 앓았고, 귀의 疾患도 계속되었다. 4월 25일에는 宣祖가 傳敎하기를 "귓속이 크게 울리니 鍼을 맞을 때 한꺼번에 맞고 싶다. 穴을 의논하는 일은 鍼醫가 전담해서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鍼을 맞을 때 한꺼번에 맞고 싶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부터 鍼治療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 耳鳴 증상이 다시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鍼醫로 하여금 鍼治療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니, 鍼醫가 鍼을 담당할 만큼, 鍼醫라는 직분이 이미 分化되어 있어 각 專門的인 治療領域을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다 할 수 있다. 이는 4월

19) CD동의보감 ver. 1.0, 여강출판사, (주)솔빛조선키미디어, 1994

반과환(半瓜丸) 담수를 치료한다. 끼무릇(반하), 하늘타리씨(과루인) 각각 200g, 패모, 도라지(길경) 각각 80g, 지각 60g, 지모 40g,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생강즙에 불린 증병에 반죽한 다음 벽오동씨만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50-70알씩 생강을 달인 물로 먹는다. 끼무릇은 반드시 생강즙에 오랫동안 불렸다가 누른 빛이 나도록 볶아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구멍이 아리다[정전].

許浚, 『東醫寶鑑』 (新編, 雜病篇, p268(大星文化社, 서울, 1992))

半瓜丸 治痰嗽. 半夏, 瓜蒌仁各五兩, 貝母, 桔梗各二兩, 枳殼一兩半, 知母一兩, 右爲末, 薑汁浸蒸餅, 和丸梧子大, 薑湯下五七十丸, 半夏, 順久浸薑汁, 炒黃色, 否則辣喉. 「正傳」

20) '瓜'字와 '瓜'字는 그 형태가 유사하여 잘 혼동이 되므로 잘못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일에서와 같이 5월 23일에도 鍼術은 鍼醫에게 물어서 전담하도록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이 될 것이다. 5월 7일에는 손가락이 자유롭지 못해 붓을 들 수 없다고 하였고, 5월 23일에는 다리 어깨 귀밑이 시고 아파서 鍼醫로 하여금 鍼을 놓도록 하였다. 10월 말 경까지 鍼治療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이듬해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宣祖40년(56세)에는 3월 말경에 鍼치료를 4번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7월 12일에는 藥物治療의 記錄이 보이며, 8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다시 鍼治療를 꾸준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10월 9일에 宣祖는 새벽에 氣急하여 쓰러졌다. 상이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들지 않아 淸心元, 蘇合元, 薑汁, 竹瀝, 鷄子黃, 九味淸心元, 皂莢末, 陳米飲 등의 藥을 번갈아가며 올렸다. 醫官들은 날이 추워 寒氣가 엄습하여 그런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다시 呼吸이 가빠져서 앞의 藥을 올리다가 오래도록 呼吸이 가라앉지 않고 가래도 성하여 二陳湯 加減方을 올리니 조금 가라앉았다. 다음날 宣祖는 “衣冠들은 風症이라 말하나 내 생각에는 필시 명치 사이에 痰熱이 있는 것 같다. 망령되어 너무 찬 藥劑를 쓰다가 한 번 쓰러지면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 傳敎하였는데, 아마도 이 때 宣祖가 쓰러진 이유를 醫官들은 風이라 하여 찬 약제를 쓰려고 하였던 것 같다. 어쨌든 이 때 宣祖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治療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醫療의 專門人인 醫官들의 의견을 좇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물론 宣祖는 그 동안 持病으로 계속되는 心熱과 痰熱, 心腎不交, 上實下虛의 증세를 보여온 것이지만 쓰러진 이유가

風寒邪라는 것에 주의하여 醫官의 의견에 따라 治療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이후로 宣祖는 계속 心氣가 上越하여 精神이 昏迷한 것이 1년여 지속되었으며 10월, 11월에 걸쳐 王世子가 侍疾을 하였고, 11월 13일 드디어 御醫 許浚을 탄핵하는 말이 나온다. 司諫 宋錫慶은 “許浚은 首醫로서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경솔히 독한 藥을 썼으니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며 許浚을 탄핵하였고, 같은 날과 다음날까지 이어서 구해, 송보, 유경종, 입장 등이 계속하여 引嫌²¹⁾하였다. 11월 14일 宣祖가 답하기를 許浚은 죄가 없다며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11월 23일 宣祖는 感氣에 걸려 咳嗽가 重하여 治療를 하였으며 12월 18일 記錄에도 기침과 煩熱이 持續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宣祖 41년(57세)에는 1월초에 感氣가 거의 나아 餘氣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래의 症狀은 아직 낫지 않았다 하여 臣下들이 민망해하였다. 1월 11일에는 滋腎丸, 交感丹을 進御하여 계속 服用한 것 같다. 2월 1일 未時에 갑자기 健康이 위급해져서 薑汁, 竹瀝, 導痰湯, 龍腦蘇合元, 開關散 등을 들여갔으나 宣祖가 이를 다 服用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王世子가 御醫로 하여금 診察하게 하였을 때 御醫가 나와서 말하기를 “일이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王世子가 下命하기를 “熱治療하는 藥을 미리 준비하

21) 인혐(引嫌)

㉠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침. ㉡ 크게 잘못한 사람도 인혐을 하면 용서하는 것이다. ㉢ 벼슬아치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대사전을 수록한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만든 한글 2002의 한컴사전에서 인용)

라.”고 하였다는 사실이다.²²⁾ 먼저 御醫가 진찰한 뒤에 한 말은 과연 이미 宣祖의 목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御醫의 능력으로는 이제 어떻게 處置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인지가 확실하지가 않다. 그런데 王世子가 熱治療藥을 命하였다는 것은 王世子가 어느 정도 醫學에 조예가 있다는 것과 또 宣祖의 疾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意味한다. 御醫가 이미 갈팡질팡할 때 王世子(光海君)가 治療의 방향을 잡고 下令했다는 것은 王世子가 의연하게 宣祖의 치료에 대처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결국 宣祖는 薨逝하였다. 宣祖를 直接的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한 疾病은 역시 情況으로 볼 때 中風으로 인한 痰涎壅塞인 듯하다.²³⁾ 물론 持病人 引飲症과 心熱, 心腎不

交 등의 疾病이 戰爭을 겪으면서 神經症, 火病과 겹쳐서 몸의 狀態를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한 가장 큰 動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宣祖가 毒殺되었다는 소문이 死後에 끊임없이 떠돌았으나 이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宣祖實錄」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宣祖의 毒殺說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나 證據를 찾을 수 없으며, 더구나 仁祖反正 이후 西人들이 편찬한 「光海君日記」에서도 이러한 毒殺說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²⁴⁾

[喜], 성내는 것[怒],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思], 슬퍼하는 것[悲], 무서워하는 것[恐]) 이 몹시 지나치면 갑자기 중풍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5가지 감정이 몹시 지나치면 심한 열이 생기기 때문이다[하간].(CD 동의보감 ver. 1.0, 여강출판사, (주)솔빛조선미디어, 1994)

22) 이로 미루어 보아 지금까지 열치료약을 그다지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 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선조 자신이 찬약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그동안의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앞서 허준이 탄핵된 이유를 볼 때 상당한 근거가 있다.

23) 동의보감 잡병편의 풍문에서 나오는 다음의 설명이 참고할 만하다.

열은 풍을 생기게 한다[熱生風]
대체로 습(濕)은 담(痰)을 생기게 하고 담은 열(熱)을 생기게 하며 열은 풍(風)을 생기게 한다[단심].

○ 풍병의 원인은 흔히 열이 심한 데 있다. 민간에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을 말한 것이지 근본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간목(肝木)의 풍이 몹시 실해서 갑자기 중풍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부터 풍을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섭생을 잘 하지 못하여 심화(心火)가 몹시 성한데 신수(腎水)까지 허약하여 심화를 억제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음이 허해지고 양이 실해지면서 열기가 몰린다. 그러므로 양신이 흐려지고 힘줄과 뼈마디를 놀리지 못하며 졸도하여 아무 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5가지 감정(기뻐하는 것

24) 宣祖의 毒殺說은 光海君과 李爾瞻의 一派에 의해 宣祖가 毒殺되었다는 소문을 말한다. 특히 仁祖反正과 더불어 光海君이 제거된 뒤로는 더욱 그 所聞에 힘이 실려 反正의 正當性을 부여하는데 一助하였다. 西人측의 기록인 「光海君日記」에는 宣祖가 승하하는 당일에 '未時에 참쌀밥을 올렸는데 上이 갑자기 氣가 막히는 병이 발생하여 위급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李肯翊의 『燃藜室記述』에는 『南溪集』을 인용하여 宣祖의 毒殺說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선비 의원인 성협이 입시 이후에 '임금의 몸이 이상하게 검푸르니 바깥 소문이 헛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당시에 宣祖가 光海君 측에 의해 毒이 든 참쌀밥을 먹고 승하하였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反正의 正當性을 부여받고자 하는 西人들의 政略的이고 의도적인 유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다만 공식적으로 實錄 등에 기록할 수는 없었고, 다만 民間에 비공식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 두 책을 참조할 것.)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서울, 푸른역사, 1998, pp.43-68.
강영민,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 서울, 태학사, 2002, pp.146~147.

III. 結 論

宣祖는 1552년에 태어나 1567년 16세에 朝鮮의 제 14대 王位에 오르고 仁順王后의 垂簾聽政을 거쳐 1568년부터 政事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젊어서는 學問에 精進하고 性理學에 기반한 王道政治를 이끌어 政治가 안정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그렇지 못하였고 오히려 朋黨과 政爭을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 1608년 재위 41년만에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각종 政爭, 逆謀, 戰爭 등 어지럽고 國難이 많은 시기를 지냈으며, 특히 日本과 치른 7년 동안의 戰爭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심각한 損傷을 받았다. 宣祖는 총 8명의 婦人에게서 14男 11女의 子女를 얻었는데²⁵⁾, 말년에 얻은 永昌大君을 총애하고 臨終時에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겨서 光海君이 政權을 掌握하는데 어려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仁祖反正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宣祖는 22세에 이미 玉音이 정상이 아닌지 몇 해 되었다하고, 23세에는 元氣가 虛弱한데 痰飲症勢가 있다는 醫官의 말과, 이후 상의 脾胃와 肺, 脾, 腎의 機能失調에 대한 記錄, 26세(宣祖 10년)에는 議政府가 상의 脾胃症을 염려하는 記錄을 보면 20대에도 벌써 健康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痰飲의 근원이 되는 脾臟의 機能虛衰로 인한 痰飲證 및 心脾虛火와 관련된 痰熱의 症狀과 後天不足으로 인

한 脾胃機能失調의 症狀이 잦다. 23세에는 消化不良과 痰飲症으로 養胃進食湯을 복용했고, 48세에는 脾胃機能虛衰로 參苓白朮散을 복용하고, 51세에는 霍亂으로 胃答湯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30대에 시작되는 筋骨格 疾患은 이후 계속 나타난다. 32세에 宣祖가 팔이 아파서 鍼을 맞았으며, 38세에 偏虛症으로, 43세에 팔목과 넓적다리가 아파서, 47세에는 寒氣로 인한 왼다리 통증과 부기로, 50세에는 오른 팔꿈치가 땅기고 아파서, 55세에는 손가락이 불편하여 鍼치료를 받는 등 神經痛과 酸痛, 牽痛, 癱木, 痺症을 앓았다. 또한 이 時期에 이미 鍼醫라는 직분이 分化되어 鍼治療를 전담한 것도 볼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神經性으로 왔으리라 생각되는 心熱, 心腎不交 등의 症狀은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데, 24세에 心臟에 열이 있다고 하였고, 45세에 心病이 생겨 昏忘하다 하였으며, 49세에는 宣祖의 증세는 본디 心熱이 쌓여온 것이라 三味導赤散과 左金丸을 進御하도록 하였고, 52세에는 藥房이 아뢰기를 心肺의 火가 목구멍으로 치솟기 때문에 咽喉症과 失音症이 잘 안 낫는다고 하는 등 宣祖는 心痰熱, 心虛火上炎의 症勢를 늘 보였다.

44세 부터는 귀울림, 難聽 등의 疾患을 호소한다. 45세에도 5월 11일에는 왼쪽귀가 심하게 울리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8월 27일에는 양쪽 귀가 완전히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46세에는 耳鳴이 있었고, 55세에 귓속이 크게 울린다고 하였다. 이는 先天稟賦不足으로 인한 腎虛와 心痰熱로 인한 痰火에 의한 腎虛耳鳴, 痰火耳鳴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痼疾病으로 정착된 것 같다.

25) 正妃 懿仁王后는 後嗣가 없었고, 繼妃 仁穆王后가 永昌大君을 포함해 1男 1女, 恭嬪 金氏가 光海君과 臨海君 등 2男, 仁嬪 金氏가 4男 5女, 順嬪 金氏가 1男, 靜嬪 閔氏가 2男 3女, 貞嬪 洪氏가 1男 1女, 溫嬪 韓氏가 3男 1女를 낳았다.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p229(서울, 들녘, 1996))

偏頭痛은 53세의 記錄에 보면 평소 앓아왔던 偏頭痛이 9월 23일부터 發作하여 10월 23일에 快差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어 비록 심했던 것은 이 때이지만 偏頭痛 역시 痼疾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引飲症은 49세 되던 해 2월 28일 처음 나오고 4월 23일, 5월 8일, 5월 28일에 나오는데 마지막 5월 28일에는 宣祖가 引飲症이 그대로라고 답하고 있어, 사실상 引飲症은 完治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記錄에는 이러한 引飲症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쓸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呼吸器 疾患인 感氣에 관한 記錄도 꾸준하여, 24세, 36세, 46세, 49세, 50세, 52세, 56세, 57세에 걸쳐 나오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그 기간도 길어지고, 후유증인 痰涎, 咳嗽, 肺熱에 관한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56세인 10월 9일에 새벽에 宣祖는 갑자기 氣急卒倒하였고, 이는 風寒으로 인한 卒中風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 41년(57세) 2월 1일 宣祖는 다시금 위급해져서 쓰러진 후 세상을 떠났다. 死亡의 情況이 소상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원인은 오랜 기간 쌓여온 心虛火上炎, 痰熱 등으로 쇠약해진 건강상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화된 건강상태에 風寒邪가 그 직접적 死因으로 생각된다. 비록 宣祖가 여러 가지 병증으로 시달려 왔으나 사망에 이를만한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별달리 기록되어 나타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후 毒殺說이 끊이지 않고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仁祖反正 이후, 反正의 正當性和 名分을 내세우기 위한 政治的·黨利黨略的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宣祖는 朝鮮時代 君王들의 평균수명인 47세보다 약 10년이나 더 살아 57세에 승하하였으므로 비교적 長壽를 누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壽命에 비해 그다지 건강한 삶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 젊어서부터 玉音의 문제, 脾胃의 문제 등으로 고생하였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疾病을 경험하였고, 결국 持病으로 인한 쇠약해진 몸에 中風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표1. 實錄에 나타난 宣祖의 疾病과 治療에 關한 記錄

年代	疾病과 治療
6년 1월 3일	政院이 상의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藥房提調로 하여금 문안하게 하기를 청하다.
2월 1일	상께서 玉音이 조화를 잃었으므로 神氣를 기르기를 청하다.
2월 25일	玉音이 조금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므로, 入侍한 신하가 다 기뻐함.
3월 17일	經筵에서 상의 목소리가 낭낭하다.
7년 1월 7일	상이 자주 체한다하여 醫官이 진찰하고 원기허약에 痰飲을 겸하였다함
1월 7일	脾胃가 상했는지 음식생각이 나지 않는다
1월 8일	藥房提調가 문안하다
1월 10일	柳希春이 脾胃를 조리하는 법과 食療單子를 써서 아뢰다
8월 16일	藥房이 養胃進食湯을 쓰도록 권하니 따르다
	心神胃 三臟이 허하므로 藥房이 養胃進食湯을 권하며 마음을 맑게 하기를 청하다
9월 17일	기운이 편치 못하여 藥房提調가 문안하다
9월 27일	藥房提調가 문안하고 加味凝神散을 올리다
윤12월 21일	政院이 대전에 문안하고 잘 조섭하도록 일게하다
8년 1월 6일	상이 꼭하던 중 기침하다 핏덩이를 토하다.
1월 21일	감기기운이 있어 藥房提調가 和解劑를 권하다.
1월 25일	左相 朴淳이 素食을 한 지 오래어 상의 脾胃에 이상이 생겼으니 민망하다고 말하다.
2월 18일	醫官이 입진하고 胃脈과 心臟이 좋지 않다고 판정하다.
2월 25일	聖候의 脈度에 肺脾胃腎맥이 약하므로 三仙膏, 生脈散 생마죽 등을 권하다.
3월 2일	醫官이 입진하여 虛熱을 치료하기 위해 加味凝神散을 권하다.
3월 5일	醫官들이 입진한 뒤 肺脈과 脾脈이 아직 좋지 않다고 진단하다.
13년 11월 5일	상의 患候가 여전하다.
11월 9일	상의 患候가 차도가 있다.
11월 26일	상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侍藥廳을 파하게 하였다.
16년 8월 4일	상이 팔이 아파 침을 맞았다.
20년 10월 5일	감기가 들어 御醫를 들이라는 傳敎가 있었다.
10월 13일	醫官에게 二陳湯을 올리라는 傳敎가 있었다.
10월 18일	醫官에게 살구씨를 가미한 五味子湯을 들이게 하다.
12월 9일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內醫院에 상을 내리다.
22년 4월 10일	偏虛證으로 經絡에 침을 맞다.
4월 13일	상이 두차례 침을 맞았다.
27년 4월 26일	상이 팔목과 넓적다리가 아파 침을 맞다.
5월 3일	침을 맞다.
5월 7일	침을 맞다.
28년 7월 28일	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다.
8월 2일	임금이 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다.

8월 8일	頭痛 귀울림 肩臂 虛寒 등의 증세가 차도가 없자 약방에서 약물처리를 건의하다.
29년 5월 11일	왼쪽귀의 異名, 難聽, 오른손의 부기와 손가락의 牽引痛, 왼쪽 무릎의 酸痛으로 침을 맞다.
5월 14일	침을 맞다.
5월 17일	침을 맞다.
8월 27일	양쪽 귀의 難聽과 눈이 어두워지고, 心病, 四肢不利로 고생하다.
30년 1월 6일	痰症, 胸痛, 感氣, 眩氣症이 있다.
4월 13일	藥房都提調 金應南 등이 침놓고 뜸뜨 날짜를 아뢰다.
4월 14일	耳鳴症으로 聽官 翳風 外關 中渚 後谿 腕骨 合谷 大溪 俠谿, 偏虛症으로 肩髃 通里 三里, 겨드랑이 밑에 氣流注症으로 崑崙 陽陵泉 承山 穴에 침을 맞다.
31년 2월 17일	玉候가 편치 않으니 政院이 이를 우려하다.
3월 3일	李元翼 등 藥房 관원이 玉體에 寒氣로 인하여 왼다리에 통증과 부기가 있어 烏藥順氣散 加減方과 침을 권하다.
3월 12일	藥房 官員이 왕의 처방으로 烏藥順氣散 加減方과 延年益壽不老丹 加減方 五加皮酒를 권하다.
9월 22일	藥房이 온수로 목욕하는 것을 금하기를 아뢰고, 왕의 증세가 痰으로 인한 것이므로 加入二陳湯을 권하다.
10월 5일	침을 맞았다.
10월 9일	침을 맞았다.
32년 윤4월 26일	都提調 李恒福 등이 임금의 건강을 근심하여 아뢰며, 蓼蒼白朮散 加減方을 권하다.
33년 1월 9일	藥房提調 洪進과 副提調 柳熙緒가 주상의 患候에 대한 처방책으로 三味導赤散과 左金丸을 권하다.
1월 20일	날짜가 추운 관계로 침 놓는 것을 미루고 清心丸 加味方을 지어 올리다.
1월 22일	藥房이 문안하니 감기증세가 있어 蓼蘇飲을 지어 올리다.
2월 28일	藥房提調 洪進과 副提調 柳熙緒가 문안하고 引飲症에 대한 처방을 아뢰다.
4월 23일	引飲症의 증세가 여전하다.
5월 8일	引飲症의 증세가 여전하다.
5월 28일	引飲症의 증세가 여전하다.
34년 3월 24일	藥房 都提調 金命元 등이 침 맞을 것을 아뢰다.
3월 27일	상이 침을 맞다.
4월 9일	팔에 肩髃, 曲池, 발에 三里, 絶骨의 혈을 치료할 것을 정하다.
4월 10일	藥房 都提調 金命元 등이 치료 내용을 보고하다.
4월 15일	藥房이 상의 감기 치료 처방을 보고하다.
4월 16일	감기 증세가 점점 차도가 있다.
4월 20일	痰을 다스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을 짓도록 하교하다.
	許浚 등에게 진찰을 지시하다.

	聖候가 肺脾脈 滑數하고, 가슴에 痰熱이 있으므로 淸金降火湯 加味方을 아뢰다.
4월 23일	콧물이 여전하므로 淸金降火湯 加減方을 권하다.
4월 24일	증세가 여전하다.
4월 26일	藥房이 宣明防風湯 合 二陳湯 加減方을 권하다.
5월 1일	聖候의 感冒症은 풀렸으나 가슴에 痰熱로 咳嗽이 그치지 않으므로 理中 豁痰湯, 半瓜丸 加減方을 권하다. 渴症에는 瀉白散 加減方을 권하다.
5월 4일	증세가 똑같다.
5월 11일	半瓜丸과 瀉白散을 올린 것에 대해 문안하니 평안하다고 답하다.
9월 11일	성상의 오른 팔꿈치 관절에 酸牽痛이 있어 침을 권하다.
9월 13일	상이 便殿에 나가 曲池穴과 阿是穴에 뜸을 뜨다.
11월 21일	領議政 李恒福 등이 상이 感氣 咳嗽이 있어 문안하다.
35년 11월 11일	霍亂症으로 인해 內醫院 御醫의 진찰을 받고, 胃答湯을 조제해 받다.
36년 9월 26일	상이 感氣로 인한 기침이 있어 藥房이 살피다.
10월 8일	藥房이 올린 半瓜丸을 진저리가 나지만 먹겠다고 하다.
12월 9일	임금이 感氣가 慢性이 된 데다 咽喉症을 앓아서 편찮았다.
12월 20~26	임금이 편찮다.
12월 28~30일	임금이 편찮다.
12월 30일	玉候가 편찮아 약을 잇달아 드셔도 효험이 없다.
37년 1월 1일~2월 14일	임금이 편찮다.
3월 3일	임금이 咽喉이 아파 톱聲이 변한 증세로 別殿에서 침을 맞았다.
3월 5일	침을 맞았다.
4월 25일~5월 4일	침을 맞았다.
5월 5일~5월 14일	임금이 편찮다.
5월 14일	귓가의 癩痺症과 咽喉의 증세로 藥房 都提調 등이 문안하다. 藥房이 荊防敗毒散을 더 드시라고 하다.
5월 15일~6월 8일	임금이 편찮다.
6월 14일	瀉白散을 복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
7월 2일	상의 持病人 咽喉症과 失音症의 치료를 위해 醫術에 능한 사람들의 書啓를 받도록 하다.
9월 23일	偏頭痛의 발작으로 침을 맞다.
9월 24일~9월 29일	침을 맞다.
9월 30일~10월 20일	상이 편찮다.
10월 23일	備忘記로 임금이 偏頭痛을 앓았을 당시의 藥房 官員들에게 포상하다.
38년 7월 30일	상의 건강이 완치되지 않아 朝講만 허락하다.
8월 1일	3년 만에 쾌유하여 經筵을 열게 되었으니 世子는 군신을 거느리고 하례해야 한다고 備忘記로 이르다.
11월 22일	別殿에서 침을 맞다.
39년 4월 25일	귓속이 크게 울려 침맞기를 備忘記로 傳敎하다.
4월 26일~5월 6일	별전에서 침을 맞다.
5월 7일	손가락이 불편하여 東西南北을 世子를 시켜 쓰게 하다.
5월 8일	別殿에서 침을 맞은 후 뜸을 뜨다.

5월 23일	기운이 다리 어깨 귀밑까지 오르내리며 酸痛이 있어 藥房에서 문안하다.
5월 24일	땀을 흘린 뒤에 증세가 좋아지다.
6월 10일	증세가 쾌차하다.
9월 14일	침을 맞다.
9월 16일	침을 맞다.
10월 30일	손가락이 오래 회복되지않아서 藥房 都提調 등이 문안하다.
40년 3월 21일~3월 26일	왕이 침을 맞다.
8월 29일~9월 19일	침을 맞다.
10월 9일	새벽에 기가 막히면서 넘어지다. 清心元, 蘇合元, 薑汁, 竹瀝, 鷄子黃, 九味清心元, 皂莢末, 陳米飲 등을 올려 기후가 조금 안정되다. 藥房에서 人蔘順氣散을 아뢰다. 侍藥廳에서 寒氣掩襲이라고 보고하다.
	호흡이 다시 가빠지니 侍藥廳 官員등이 입시하다. 清心元 등을 복용하다.
	호흡이 다시 가빠져 清心元 등을 복용하다.
10월 13일~11월 12일	王世子가 대내에서 侍疾하다.
11월 13일	司諫 宋錫慶 이 御醫 許浚을 탄핵하다.
	御醫 許浚 탄핵 문제로 大司諫 柳潤이 引嫌하다.
	御醫 許浚 탄핵 문제로 正言 구해가 引嫌하다.
	御醫 許浚 탄핵 문제로 獻納 송보가 引嫌하다.
	御醫 許浚 탄핵 문제로 柳慶宗이 引嫌하다.
	御醫 許浚 탄핵 문제로 正言 任章이 引嫌하다.
	御醫 許浚 탄핵 문제로 大司憲 洪湜이 引嫌하다.
	御醫 許浚 탄핵 문제로 執義 柳希奮이 引嫌하다.
	御醫 許浚 탄핵 문제로 掌令 李久澄, 持平 南復圭, 成時憲이 引嫌하다.
	藥房 都提調 柳永慶 등이 대죄하다.
11월 23일	땀을 發散시키는 解熱劑를 의논해 들이라 명하다.
12월 18일	歸脾湯을 중지하고자 하다.
41년 1월 5일	藥房提調 崔天健 등이 문안하니 잠을 자고 혹 깨기도 하며 咳嗽은 좀 그쳤다함.
1월 7일	感氣는 거의 나았으나 餘氣가 있다고 하다.
	四物元에 滋腎丸 등을 加味한 약은 봄까지 進御한다고 藥房에서 보고하다.
2월 1일	감자기 건강이 위급해지다. 薑汁, 竹瀝, 導痰湯, 龍腦蘇合元, 開關散 등을 들여오다. 王世子가 御醫로 하여금 진찰하게 하다. 王世子가 熱 치료약을 준비하게 하다. 宣祖가 薨하다.

IV. 參 考 文 獻

1.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2. 許 浚, 『東醫寶鑑』, 서울, 麗江出版社, 1994.
3. 李 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4.
4. 金 勳,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5. 尹漢龍·尹暢烈,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01 VOL.14, No.1, pp.125~151.
6. 韓國韓醫學研究所, 『韓國韓醫學史 再定立 上·下』, 보건복지부 과제 1995년도 연구결과 보고서.
7. 金重漢·金達鎬, 『韓·中 醫學簡史』, 부산, 소강, 1995.
8.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93.
9.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 修書院, 1988.
10. 大韓東醫生理學會 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11. 辛民教 編著, 『原色 臨床本草學』, 訂正4版, 서울, 永林社, 1994
12. 『한국사』 7~9, 서울, 한길사, 1994.
13. 유초하, 『한국사상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1994.
14.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1』 -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 서울, 한길사, 2000.
15.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2』 - 국가 재건과 청의 침입, 서울, 한길사, 2000.
16.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들녘, 1996.
17. 이성무,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서울, 동방미디어(주), 1999.
18.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서울, 푸른역사, 1998.
19. 강영민,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 서울, 태학사, 2002.
20. 이덕일·이희조,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서울, 김영사, 1999.
21. CD-ROM 韓國歷史 五千年 III <CD-ROM 國譯 朝鮮王朝實錄>, 서울시스템주식회사, 2001(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회가 국역)
22. CD동의보감 ver. 1.0, 여강출판사, (주)솔빛조선미디어, 1994.